

escapade 2/3 - “focus on music”

신지수(Jee Soo Shin)

신지수의 escape 2/3 - "focus on music"은 악보와 음악과의 관계, 관객과 연주자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만든 무대이다. 일반적인 연주회에서는 보통 악보가 연주자에게는 주어지는데 청중에게는 악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악보를 전광판을 통해 청중이 함께 보는 시도를 해 보았고, 이 악보는 사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어서 연주장에서 촬영기사가 관객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 또한 연주 자체도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한다. 이제까지의 콘서트에서는 악보에 그려진 음악이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이것을 쌍방의 작용으로 바꿔보고자 한 것이다.

음악회장에서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항상 수동적인 형태가 되어왔다. 절대로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서는 안되며, 기침이 나오더라도 곡이 끝날때 까지 참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청중들의 역할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고, 음악회장에서 연주가 되기 위한 요소들 중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고 있었다.

또 하나의 공간인 미술 전시장에서 또한 작품이 벽에 걸려있거나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관객은 이를 체험하고 감상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음악회장 못지 않게 수동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 두 공간을 종합하여 전시 공간에 각각 떨어진 위치에 연주자를 비치 해 보았다. 관객들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미술 전시를 구경하듯 돌아다니면서 연주자를 구경하게 되어있다. 이들의 동선에 따라 연주자들이 반응하여 즉흥적으로 미리 정해진 시스템에 부합하여 연주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결국 전시장에 들어오는 청중이 없으면 음악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음악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서 전광판을 통해 보여지는 영상 또한 이 모든것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으므로 작품 의 소리와 시각, 등 모든것이 그 공간 안의 구성원들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신지수-

www.ozeproject-series.com